

화엄사, 2025 키워드·이미지 분석

1. 화엄사 야경, 2. 2025 화엄문화제
3. 제5회 모기장영화음악회
4.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5. 제5회 흥매화 사진찍기대회



2



화엄사 미디어 가치 145억 지역 문화·관광 동력으로

지리산 대화엄사가 미디어 노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대화엄사 주지 우석스님은 화엄사 흥보기획위원회,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문화연구원과 함께 '2025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이미지' 미디어 노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 및 이미지의 노출 가치는 1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행사 가운데서는 대화엄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흥매화 사진찍기대회'가 78억4천만원으로 가장 컸고 모기장 영화음악회 (24억원), 화엄문화제 (17억원), 요가대회 (6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공중파·종편 뉴스, TV 문화 프로그램, 포털, 유튜브, 블로그 등을 종합 조사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했다.

석길암 동국대 교수는 미디어 노출 확대가 지역 경제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구례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5년 숙박업은 27개, 카페는 53개, 일반음식점은 90여 개가 증가했다. 석 교수는 "대화엄사를 중심으로 '불교의 역사적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 이벤트의 확산은 지역 관광과 주민 경제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흥매화 사진찍기대회 방문객은 2024년 25만명, 올해 30만명으로 늘었으며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정 시즌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계절별 관광 마케팅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화엄사 홈페이지 접속자 수 역시 급증했다.

흥매화 사진찍기대회·화엄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방문객 증가
계절별 관광 마케팅 활용 가능성도

일일 접속자는 2023년 3천명에서 올해 2만6천명으로 늘었고, 월평균 접속자는 9만1천명 (2023년)에서 35만8천명 (2024년), 67만4천명 (2025년)으로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 100만명에서 올해 1천만명에 도달했다.

흥보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 ▲문화확장 중심의 마케팅 ▲소셜 미디어 이미지 확산 ▲리뷰·관광 포털 활성화 ▲이벤트 효과 ▲지속적 인지도 상승 ▲문화관광 트렌드 확장 등을 꼽았다. 향후 홈페이지 내 숙박·맛집·문화재 등 유료 콘텐츠 도입도 검토 중이다.

최근 5년간 미디어 노출 기반 경제적 가치는 2021년 37억원에서 2022년 46억원, 2023년 82억원, 2024년 120억원, 2025년 14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스님은 "전임 주지 덕문스님이 지역과 함께 시작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구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엄사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나로 살아가는 용기’…뮤지컬 ‘레드북’ 광주 무대

12-14일…광주예당 포시즌 기획공연 대미 장식

올겨울 관객에게 따뜻한 여운을 전할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레드북’이 빛고를 무대에 오른다. 여성의 주체성과 자유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를 유쾌하고도 단단하게 풀어낸 이 작품은 믿고 보는 캐스팅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출로 광주 관객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포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뮤지컬 ‘레드북’이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13일 오후 2시·7시, 14일 오후 7시 등 총 4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뮤지컬 ‘레드북’은 19세기 보수적 분위기가 짙은 빅토리아 시대 런던을 배경으로 한다. 숙녀로 규정되길 거부하고 ‘나’로 살고 싶은 여자 안나, 그리고 신사로 살아가는 법 외에는 모르는 고지식한 변호사 브라운이 서로를 통해 이해와 존중을 배워가는 이야기다.

작품은 단순한 시대극을 넘어 여성의 선택과



주체성이라는 메시지를 묵직하게 전하며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연출상·안무상·여우조연상을, 제6회 시상식에서는 작품상·연출상·음악상·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창작 뮤지컬의 지력을 입증했다.

광주 무대에는 화려한 출연진이 출몰동한다. 솔직하고 당찬 매력의 안나 역은 옥주현·아이비·민경아가, 사랑 앞에 시툼 변호사 브라운 역은 송원근·지현우·김성식이 연기한다.

/최명진 기자

모성·자연·돌봄…익숙한 신화를 다시 바라보다

조성숙 개인전 ‘Mother / Earth / Care’

오늘 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서 개막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자연·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부과된 ‘돌봄의 신화’를 다시 살펴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오미란)은 1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재단 내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 (Herstory)에서 제8회 허스토리 기획전 공모전 수상작인 조성숙 개인전 ‘Mother / Earth / Care’를 선보인다.

조성숙 작가는 여성 신화의 기원과 돌봄의 기억을 다시 읽어내며 여성의 몸과 지구를 ‘생명 창조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상처와 치유, 회복을 이어가는 작업을 통해 돌봄을 희생이 아닌 ‘재생과 변환의 힘’으로 재정의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조성숙 작품

전시 개막일인 11일 오후 3시30분에는 재단 1층 북카페 은새에서 연계 워크숍이 열린다. 조성숙 작가와 김용근 평론가, 최송아 기획자가 참여해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모성과 돌봄의 신화를 상상한다’를 주제로 작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눈다.

/최명진 기자

ACC, 온라인 대관 시스템 도입

15일까지 극장 정기대관 신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은 2026년 대관부터 대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대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유선문의후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던 대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도입된 ACC 대관시스템 (<https://www.accgo.kr/firs/index.do>)은 ACC누

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ACC 대관시스템은 ▲시설별 예약 가능 일정 확인 ▲신청-심의-계약-실무협의-사용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 ▲대관 이력 조회 등 비대면 기반 기능을 포함한다. 극장, 전시관, 회의실, 연습실, 야외광장 등 총 14개 대관시설과 장소 협조 야외광장 3개소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대상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CC는 오는 15일까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예술극장1·3에 대한 내년 상반기 (1월2일-6월30일) 정기대관 신청을 받고 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